



2022 년의 끝자락에서 보내는 선교편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편안하신지요? 이곳 페루는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4 번 대통령이 바뀌더니 지난주 대통령 탄핵과 구금 그리고 거친 군중의 시위로 인하여 일부 공항이 폐쇄되고, 도로가 봉쇄되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페루의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은 공산당이라 이대로는 물러 설수 없다는 모습으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새 QT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고 인간들의 욕심에 헛된 노력 또한 새로운 것이 없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분을 믿은 우리의 사명인것 같습니다.



고아원 이야기

저희는 지난 7 월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 그동안 2 년동안 끊어졌던 고아원 사역을 위해 리더들을 2 달간 훈련하고 9 월 첫주부터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처음에는 동한 얼굴로 저희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얼굴은

늘 힘들고 지쳐 있고 경계심을 하는 얼굴입니다. 그 아이들이 웃고 신나게 저희들을 반겨 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을 지난 세월동안 배웠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에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주중에 알파벳을 1:1 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친해진 Noemi 는 늘 찡그리고 말도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나면 친한척을 하면서 웃습니다.

7 살인 Yael 은 몇주 만에 다시 만나더니 “이모” 하면서 꼭 안아줍니다. 이럴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몇년전 딱나에 미국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남자분(Andy)은 목사님이며 제가 다니는 페루 남침례교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여자분은(Courtney) 소아과 의사입니다. 요번에 고아원의 아기들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몇몇이 있어 Courtney 선교사에게 고아원에 와서 한번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하여 고칠수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니 '전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몇번이고 고아원을 방문 하기를 원했으나 허락이 안되어 올 수 없었는데' 하면서 기쁘게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이야기

9 월부터 다시 사무실을 준비하고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르니 선교사님 남편되신 앤디 선교사님이 영어를 일주일에 한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년 사역으로 3 개월 코스로 페루에 오셔서 영어를 가르쳐 주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어

저희가 미션 샤마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형편상 현재는 1 명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이름은 Yoseph 19 살인데 교회와 저희들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 하고 똑똑한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Jerson 목사님에게 여쭙 봤더니 부모님이 알콜 중독인데다 어려서 부터 학대를 했고 Yeseph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때리고, 목사님에게 협박도 했다고 하네요.

전도서 4: 12

“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난 2 년간 Covid 를 통해 움추렸던 마음을 다시한번 재정검하며 새롭게 준비를 하며 조금씩 사역의 장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실을 통해 젊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페루의 젊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될 수 있도록(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저하증)
2. 새로운 사역(한국어 학원, 기술학원, 현지인교회 청소년 훈련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Mision Shamma 를 통해 고아원의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4. NGO 허가가 순조롭게 잘 나올 수 있도록
5.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 할 수 있도록
6. 페루의 혼란한 정치가 하루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